

대표	김기진
창립	2011
과제명	3D 외과 수술 교육을 위한 의료용 카메라 시스템
사업명	2019년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공개평가형)
위치	서울시 중구 을지로 16 백남빌딩 1002호

Leading Medical Edu Tech  
**3D MediVision**

## 언택트 시대 여는 따뜻한 의술

### 쓰리디메디비전(주)

시대를 앞서 내다보는 혜안은 현재를 넘어 미래를 바꾸는 혁신의 단초가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언택트 시대라는 급진적 변화기를 맞음에 따라  
교육시장도 중요한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메디컬 에듀테크 분야를 개척해온 쓰리디메디비전(주)이 독심 있게 행보를 이어가는 이유다.



“ 세계 최초의 수의학 의료교육 플랫폼을 넘어  
인의학 분야의 수술 의료 영상 플랫폼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메디컬 에듀테크' 강자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



**쓰리디메디비전(주)은 어떠한 기업인가요.**

세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메디컬 에듀테크' 전문기업입니다. 의료분야 최초로 3D 영상시스템을 활용해 인의와 수의 분야 등 의료교육 영상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 교육 분야에서 시각적·공간적 제한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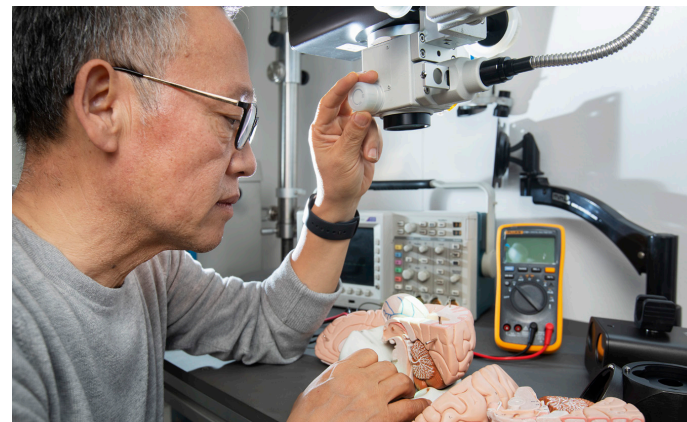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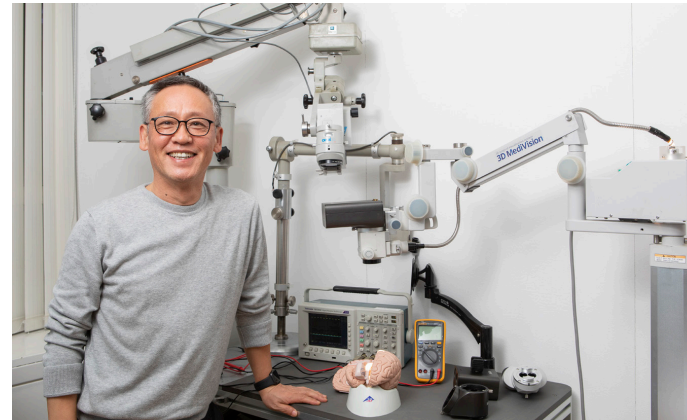
2011년 3D 영상의료기기를 개발·공급하는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수술 영상을 편집해 '수술 교육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수술 교육영상 플랫폼 서비스 사업부, 영상 콘텐츠 제작과 영상기기 개발을 담당하는 제작부, 회사 전반의 지원을 맡고 있는 경영지원부 크게 3개 부서를 기반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사업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3D 의료영상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새로운 의료 교육 패러다임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력 아이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의료교육 시장의 지역 편중 및 높은 교육비용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스마트 교육 환경을 구현하는 3D 의료영상 시스템을 개발해 공급하는 사업을 주축으로 합니다.

2019년 수의 수술 의료분야 3D 의료영상 온라인 플랫폼인 '베타플릭스'를 오픈해 3D 의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타플릭스는 실제 수술 현장 교육을 비대면으로 체험할 수 있어 임상수의사 및 수의학 관련 기관 등의 호평을 받으며 콘텐츠 사용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국내 총 개원 수의사 중 약 20%의 수의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11월 말 기준으로 8개 과목에 133개 영상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세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메디컬 에듀테크 전문기술을 선보인 김기진 대표
2. 수의분야 수술 영상 플랫폼으로 입지를 강화해나가는 쓰리메디비전의 장비 모습
3. 비대면으로 실제 수술 현장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베타플릭스 시연 모습



**쓰리디메디비전(주)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세계 최초로 3D 영상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과 3D 의료영상 사업화에 최적화된 내·외부 밸류 체인(Value Chain)을 구축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기존 자체 개발한 3D 의료영상 시스템 제작·판매 회사에서 나아가 촬영된 의료영상 콘텐츠로 온라인 교육 사이트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비대면 교육 수요가 높아지는 등 교육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쓰리디메디비전의 시장 경쟁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교육의 '뉴노멀'을 제시하며 국내외 에듀테크 시장을 확대해나감은 물론 급성장하고 있는 '펫코노미'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SBA와의 협업을 통해 얻은 성과들은 무엇인가요.**

본래 외부 투자 유치와 정부지원금으로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부과제에 참여해오던 중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시점에서 필요한 자금 및 홍보 활동에 SBA의 지원사업이 유효하게 작용했습니다.

그중에서도 3D 영상기기인 'G-FLIX2010'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재질(연성), 렌즈조절(편익), 렌즈마운트(비용) 등 사양 업그레이드를 만족시킨 데 이어 의료기기 제조신고와 전자파 적합성 인증 등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또한 'G-FLIX2010' 장치로 촬영된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2020 WVC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미국 웨스턴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및 관계자들과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해 이후 미국을 오가며 다양한 수의동물 수술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좀 더 구체적인 사업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시장에서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시민(소비자)에 친숙하게 다가서기 위한 쓰리디메디비전(주)의 홍보 전략이 있나요.**

주 소비자인 수의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기반으로 학교, 협회, 개인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안하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국내도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펫팜족', '펫코노미'로 불리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의료시장도 확대되고 있어 쓰리디메디비전의 수의 수술영상 교육 사업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쓰리디메디비전은 1,500만 펫팜족은 물론 국내 7,000명 이상의 수의사들의 수의학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반려동물 교육 콘텐츠 등 소비자들이 보다 필요로 하

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들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더불어 향후 수의학 관계자들, 반려동물 양육 가정, 다양한 소비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정보 공유 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술을 통한 사회 환원에 대한 쓰리디메디비전(주)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전통적인 의료·수술 환경에서 1대1의 도제식 교육 방식이 아닌 3D 영상을 활용한 1대 다수의 교육을 통해 불가피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여 실험동물 윤리 및 동물권 보호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중·고등학교 생물교육, 예술 분야 등 수의학 외에 동물의 해부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타 분야에서도 해부학 콘텐츠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쓰리디메디비전은 수의학 정보공유 및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메디컬 에듀테크 전문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혁신적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중·장기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현재 수의분야 교육 사이트 '베타플릭스'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인의분야 교육 사이트인 '써지플릭스' 사업도 오픈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국내 서비스를 안정화한 가운데 현재까지의 사업 활성화 기반 구축을 토대로 향후 미·중·일 등 해외 진출과 리트레이닝 센터 건립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전 세계 언택트 교육 수요가 확대되었고 미국, 중국, 일본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의 수의사 수는 약 20만 명 규모로 한국의 약 30배에 달합니다. 베타플릭스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소비자에게 쓰리디메디비전(주)이 어떠한 기업으로 떠올려지길 기대하시나요?**

우리 사회는 이제 언택트를 넘어 '디지털(디지털+컨택트)'을 향하고 있습니다. 쓰리디메디비전은 다년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교육 시장을 이끄는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수의학 의료교육 플랫폼을 넘어 인의학 분야의 수술 의료 영상 플랫폼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메디컬 에듀테크' 강자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sba](#)



**SBA가 응원합니다!**

서울R&D지원센터 홍성진

쓰리디메디비전(주)은 외과 수술용 3D 카메라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했습니다. 의료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환부영상 촬영의 안정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확한 방향을 도출하여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쓰리디메디비전(주)은 열정을 경쟁력으로 만드는 힘을 가진 기업입니다. 의학계 전문가가 부족해지는 현실 속에서 본 기술을 통해 숙련된 전문의 양성의 선두주자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